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2016년 2차회의 개최 결과**

2017.12

정 보 기 획 관  
정 보 기 획 담 당 관

## 회의개요

- 일 시 : '16. 12. 21.(수) 11:30 ~ 13:00, 90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 참 석 : 정무부시장, 정보화전략위원, 디지털보좌관 등 30명
- 안 건 : 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디지털기본계획2020 추진현황

## 회의내용

### < 신규위원 위촉식 >

#### 위촉장 수여(정무부시장) 및 단체사진 촬영

#### 정무부시장 인사말씀

- 정보화전략위원회는 '98년 출범한 이 후 지난 18년 동안 서울시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방향 제시로 서울시 전자정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전자정부 도시로 평가 받고 있으며 국·내외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 2월, 2020년까지의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추진 마스터플랜인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대외 발표하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앞서가는 정책을 지속하여, 진정한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서울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서울시 디지털 시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선출

- 위원추천(○○○) : 위정현 교수
  - ※ 앞으로 콘텐츠나 스토리 부분이 중요하므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천함
- 동의·재청 : 전체 '동의'함

#### 부위원장 인사말씀(위정현 교수)

- 능력도 안되는데 송구스러움. 부위원장의 주요한 임무는 회의진행인 것 같음. 회의 진행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음. 회의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튼실하여 운영의 묘만 발휘하면 될 것 같음.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음

## 〈 정기회의 안건 논의 〉 부위원장 진행

### □ 정보화전략위원회 개요 설명 및 안건보고 (정보기획담당관, 간사)

※ (안건보고) 서울 디지털기본계획2020 추진현황

### □ 주요 논의내용

- (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사)K-ICT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주로 하는 게 토종 국산 ICT 생태계를 보존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운영실태에서 양질의 국산제품 활용을 독려하고 있음. 사전에 보내준 자료가 207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모두 다 봤고, 오늘 아침에도 보내준 회의자료를 대략적으로 보고는 왔는데, 내용이 잘 되어 있음. 이런 것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2020계획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스템 위주라는 생각이 들었음. 저는 예산을 가지고 시민 편리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뭐가 남았냐? 치적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듦. 국산제품들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평가지표에 그런 지표들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그래서 결국은 국산 토종 ICT 제품들이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많이 활용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봄. 40대 후반부터 50대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이런 분들을 재취업시킬 수 있는 치적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함.
- (○○○) 4-2-1번에 클라우드서비스 미래형데이터센터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장비의 많은 부분을 국산화 하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과제임. 그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음
- (○○○) 위원님 말씀하신 국산 ICT사업 활성화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국산 제품의 서버부터 써보고 문제가 없이 잘 가동된다고 했을 때 운영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임. 2014년 미래부와 매칭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만해도 4%대였는데 올해 12%대 였으며 결산을 해 보면 더 높아 졌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 사업은 미래부 지원을 받아서 5년동안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때까지의 목표를 20% 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음
- (○○○) 사실 하드웨어 운영실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시

가 이미 하고 있다고 하시니 서울시가 역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 잘 아시겠지만, SW부분이 더욱 심각한데, 구축비용이 100억이라고 하면 운용비용이 3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DB같은 경우에도 국산같은 경우는 12%의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외산의 경우는 25%를 주는 가장 불합리한 사례임. 그러므로 SW의 경우도 검증센터가 있다면, 주 시스템으로는 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워도 백업시스템 또는 서브 백업 등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고 생각이 듭.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용을 확대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음

- (OOO) 국산 DB의 경우에도 여러 종류를 다 사용을 해 봤는데 작은 단위업무에서는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실적보고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임
- (OOO) 네... 감사함
- (OOO) 12대 과제 54개 이행과제에 대해 봤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상당히 감동적임. EU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 이런 과제들을 통해 디지털 시정, 경제로 이행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음. 대체적으로는 미래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조정에 대해서는 전략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잘 아시겠지만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 서울시 택시조합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최근에 플렉스나 렉시 같은 카풀업체들과 택시와의 갈등이 생길 조짐도 있구요. 또는 에어비엔비와 도시형 민박과의 갈등 등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텐데, 일반적인 서울시의 민원시스템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전략과제의 추진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선제적으로 불안과 불신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봄. 신뢰가 없이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략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나 하고 여쭙봄
- (OOO) 그 부분은 사실 과제상으로 보면 총괄조정하는 과제는 없는 상황임. 각 과제들은 시의 모든 실국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을 모아놓은 상태이다보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음. 오늘 위원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조직이 추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과제화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음. 지금은 추가되는 과제가 없는데 사실 추가되는 과제도 있어야 한다고 봄.

- (○○○)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 (○○○)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 좋은 이야기 많이 있음. 회의자료 19페이지 보면, 그림이 좋은 것 같음. ‘시민으로부터 시민에게’... 시민으로부터 이런 발상이 나왔다면 ‘시민에게’라는 부분에서 시민에게 어느 정도 와 닿았는지,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함.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서울시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냐... 지하철을 타 보면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하철은 다음 역 정보는 밖을 내다봐야지 확인할 수 있음. 버스는 되어 있지만 전동차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외국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서울시라고 느낌.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한국의 G맵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자체에 국산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고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5년이라는 시간이 디지털분야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므로 매년 바뀌어야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통계자료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함
- (○○○) 좋은 의견임. 10만 시민의견 수렴은 어떤건지?
- (○○○) 시민수요조사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4대 전략이 나와있는데 4대전략을 탑다운으로 정리한게 아니라 시민들이 서울시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를 해서 정한 부분이 있음. 세부과제로 들어가면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라는 과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하는 디지털정책들이 시민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심지어는 시민들이 직접 내용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공공부분에 절차나 규정 등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데 과제 내용을 보시면 제도개선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일단, 제가 이 과제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국 과제에서 2016년도에 2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시민들 반응을 지켜본 부분이 있구요, 내년도에는 그 수를 좀 더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 예정임. 올해 시범사업은 시민들의 정성적인 반응을 주로 받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하고 정량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임.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보고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으나,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과제에 대한 시민 반응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예정이므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그 결과에 따라서 ‘18년도부터 시

전체에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행이 될 것 같음

- (○○○) ○○○ 교수님이 의견은 아주 중요해 보이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람
- (○○○) 자료에서 제외사업들은 사유를 알 수가 있는데, 성과부진 3개 과제는 사유가 어떤건지 모르겠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 (○○○) 부진과제의 경우는 당초에 명확하게 지표설정이 안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음. 3-1-4, 3-1-7, 3-2-7번 이렇게 3개 과제가 정량적인 내지는 단계별 목표가 선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던 과제들이었음. 저희 국 과제인 3-1-7번 과제는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 진행이 좀 늦었으며, 3-2-7번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는 일정부분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음. 3-2-7번 과제는 정보보호 교육을 NGO와 함께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되었던 부분이었음. 3-1-4번 과제는 구축물인데 지난번 실무조정회의 때 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 사업내용 중에 당초 앱개발이 있었으나 앱개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 사실, 제가 특별히 질문드렸던 이유는 3-1-7번 사회약자 안심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특별히 부진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음
- (○○○) 저희 국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사회약자 안심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음. 이통사망을 이용한 서비스인데, 재원에는 항상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기존 서비스의 수혜대상자 수가 항상 한정되어 있어서 저비용에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 이 과제의 당초 취지였는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임. 저희가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통사들처럼 서비스 질과 비용 측면에서 아직 적합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
- (○○○) 전체적인 사업들이나 구조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다만 제가 정보화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은 시스템이나 사업별로 잘 분류된 모습인데요, 정보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시민들의 질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같음. 예를들어 인공지능이라든지... 음성인식이 잘되면 시민이나 노인들이 키보드 입력이 아닌 음성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기존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의 첨단화라는 또다른 관점에서 공통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2020의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융합형 모델로 시민들의 서비스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행자부 전자정부2020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필두적인것의 하나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첨단기술들을 융복합해서 국민서비스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데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음. 그래서 이부분도 분야들도 잘 조합이 되어 있지만 최종 퀄리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별도로라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들을 드라이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 (○○○) 답변이라기 보다는 사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음.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항상 느끼는 건데 기술이 서비스를 푸쉬해 내는가에 대해 처음 전략을 짤 때 고민했음. 해외 여러국가, 도시들과 교류를 하다보면 정말 놀랍도록 훌륭한 인프라와 기반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낌. 지금 우리가 테크놀로지 푸시형에 대해 약간 속도를 늦추고 마켓팅의 영역으로 전환할 여유가 있지 않나하는 것이 계획의 방향이 잡히는데 큰 판단이었음. 그러면서 기술적 경쟁력을 놓치지 않도록 4-1번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뿌영계 정리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2016년에 처음 진행한 서울디지털서밋의 경우는 아마존, 인텔 등 15개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해서 과제들을 제안하고 그 중에 일부과제들은 시와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시가 민간기업이나 기술중심의 조직처럼 R&D를 하는 것보다는 오픈 플랫폼 형태로 민간기업들이 좀 더 규제나 경쟁형태로 제한적으로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형태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과제에 들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형태의 R&D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음.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시 출연기관인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과 5년 내내 함께 고민 해 봐야 할 것 같음. 자칫 잘못하면 기술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 (○○○) 전 세계적으로도 서울만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드물 것인데, 민간기업에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공직성에 맞는 민간의 투자가 좋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결합을 한다면 지금까지 글로벌 선진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캐어.. 예를들면 사회약자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그 다음 긴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이 캐어해 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이런 부분들은 다른나라들도 못 그리고 있는 부분들일 것인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쉽게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음
- (○○○) 제가 한국에 오기전에 미국에서 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함. 그 경험을 공유드

리면, 시장 바로 밑에 정보부서(information department)가 있고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도 구성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함. 정보부서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데이터 웨어링임. 정보를 어떻게 잘 공유하는가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임. 54개 과제마다 우리나라 행정조직들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이 부서간의 벽이 굉장히 높으며, 그러다보니 정보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라고 생각됨. 이것은 세계 전체적으로 가진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장 밑에 정보부서가 위치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음. 과제는 해당 부서에서 이행하겠지만, 과제끼리 융합하는 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백본이 되는 과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과제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음.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부분에 대한 과제는 많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과제중에 공간정보센터, 데이터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 자체가 센터를 위한 과제라는 느낌임. 예를들어, 소방관계 데이터 구축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소방쪽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을 공유해야 하지만 가능한 부분임. 그러한 부분은 인프라 측면에서도 과제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대로 안되었을수도 있겠지만, 너무 서비스 측면에서의 과제들이 강조되다 보니깐, 백본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서서히 잊어버리지 않을까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잘 하시겠지만 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림

- ▷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할 것 같음. 실제로 조직체계라든지에 대한 말씀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음. 성과 평과 등 여러가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정부조직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음. 교수님을 모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어서가 아닐까하고 생각함. 향후에 미국에서의 경험들을 잘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서...식사하시면서 논의 했으면 좋겠음.
- (○○○)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데이터 공유는 통계데이터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이렇게 2개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음.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장 2명이 설명드리도록 좋겠음.
- (○○○) 기본적으로 데이터 공유는 내부에서 행정 접목을 위해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며, 또 하나는 민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데이터와 융합하는 등의 측면이 있음. 내부측면은 기본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민간 융합 부



분은 내부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

- (○○○)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음. ‘공간정보 공유활용확대’라는 과제가 적시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공간정보의 기본정보라는 것을 포함한 도시공간정보에서 기본이 되는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오픈API라든지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책지도의 경우에도 오픈API라든지 비정형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음. 비정형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불편신고의 경우는 1일 천건을 넘으며 한달이면 3만건 이상이 되는 소중한 데이터가 시민이라든지 연구단체에서 필요할 때는 제공해 주고 있음. 데이터 갱신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음
- (○○○) 제가 추가로 보완설명 드리겠음. 과제상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과제가 몇 가지 있음. 먼저 공간정보는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을 통해 시에 있는 공간정보는 한곳에 모으고 각 부서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는 연계 활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그리고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심야버스 사례와 같이 빅데이터 쪽을 잘 활용하고 있음. 초기에는 빅데이터를 주로 서비스 또는 과제단위로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음.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보면은 굉장히 ‘무엇무엇을 위한 분석시스템’이라는 식으로 각각 있었는데, 재활용 문제나 지속적 활용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부터 과제를 바꿔가고 있음. DW형태의 기 분석된 중간자료나 원천데이터를 하나의 사일로에 모아 놓고 개별 분석과제들이 거기서 브릿지를 쳐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4-2-3번 빅데이터 공유활용플랫폼 고도화라는 과제로 잡혀 있음.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음.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고 하면 생산부서에서 ‘못줘’ 내지는 ‘우리 시스템 부담되니깐 1년 후에 연동하자’ 등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5년 동안에 의견개진을 계속 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단 보고 등을 통해 목소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음
-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 (○○○) 제가 정부3.0 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열심히 하셔서 서울시의 정보개방, 공유 사례가 벤치마킹 모델로 되고 있음. 그래서 자료를 보다보니 고객을 시민으로 보고 계신데, 서울시가 이제는 외부 방문객들이 많으므로 서비스를 글로벌도 겸하여 포함하고 고객의 대상으로 넓히시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형태가 가능할 것이므로 고민이 필요함

- (○○○) 부족했던 부분이었음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 고민해서 추가 과제로 고민하도록 하겠음
-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 (○○○)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원은 저 혼자라 부담감이 큼. 서울시에 많은 행정서비스들이 있을텐데 어떤 것은 완결된 서비스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플랫폼 형태로만 제공하고 민간에서 API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있을 것인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인지 궁금함
- (○○○)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플랫폼서비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임. 시 예산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다보면 유지보수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프로세스(과제발굴, 발주, 외주개발 등) 서비스의 지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1년에 한번 예산을 승인받고 외주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앱 업데이트를 1년에 한번하면 사용자들이 많이 이탈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 상황임. 예를들면, 시에서 직접 개발한 공공앱을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했지만 산하기관 포함해서 아직 40개가 넘는 상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캠페인 제목이 '서울시를 이기자'임. 시는 API나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앱서비스를 공모전 형태로 민간이 만들도록 하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시에서 개발한 앱을 대체하는 형태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낌. 당분간은 플랫폼 제공을 강화해서 민간 쪽에 어떤 BM 발굴이나 서비스 고도화에 더욱 기여하자는 측면으로 추진 중임
- (○○○)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플랫폼을 강화해서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좀더 예민한 민간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 디지털 서울 선언문 제2조에도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임
- (○○○) 서울시에서 납세, 민원 등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플랫폼으로 제공해도 좋을 것이 많을 것 같음. 다음과제를 선정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 (○○○) WeGO는 서울시가 2010년 주도하여 창립되었는데,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사실 서울시가 의장도시이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도

시를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가 그간 해 왔던 정책들에 동감하고 그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음. 선언문 제8조에 나와있는 ‘디지털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협력한다’ 부분을 저희가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음. 위고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사례를 해외방문단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도시에 많이 전파하고 있음. 서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위고에서는 해외에 ‘사례 위주’로 소개(엠보팅, 심야버스, 데이터공유, IoT실증단지 조성 등)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은 해외 도시들은 ‘서울이니깐 가능해~’라고 생각해 버리곤 함. 이제 이런 사례소개 위주의 경험 전파를 뛰어넘어 실패사례나 추진과정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부분을 세밀하게 보완한다면 훨씬 국제적으로 서울경험을 전파하고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여기 계신 디지털재단과도 그쪽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음.

- (○○○) 잘 새겨 들겠음
- (○○○)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제가 시민사회단체 소속이다보니 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함. OGP라는 국가간 협의체에 최근 서울시가 지방정보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대표자로 참여를 하면서 전략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음. 최근에 파리에서 OGP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화두는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저도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고급정보, 오늘 회의자료 등이 과감하게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듦. 대외비라고 했지만, 시민들의 코멘트를 사전에 받기 위해서는 이미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코멘트를 받고 하는 등 관련 법이나 조례 등이 정한 절차가 있겠지만, 제가 저 혼자 참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가 실험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디지털정책 방향, 과제의 평가, 변경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ICT기술을 활용하는 논의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온라인 공개형태로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바로 코멘트를 주실 수 있다고도 생각함
- (○○○)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음. 내년에는 2부로 나눠서 1부는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써머리 형태로 진행하고 2부에서는 시간되는 위원님들과 함께 온라인 공개회의를 진행하는게 어떨지 생각이 듦.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으로 하는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한번 고

민해 보도록 하겠음

- (○○○) 디지털2020 54개 이행과제 체계에 대해 의견을 드림. 54개 프로젝트가 들어 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할 것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기준이 무엇이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들을 다 묶어주는 상위개념의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그래서 최고의 지향점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지향점에 대한 평가지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음. 우리가 전자정부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전자정부를 측정하는 인덱스가 있었을 것임.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디지털 지수(인덱스)를 개발해서 그것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듦. 내년 이맘때쯤 사업계획을 이야기 할 때는 ‘올해 디지털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라는 한 축을 놓고 그 하부구조로서 과제들이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표들이라는 것은 인프라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들이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계층간의 격차가 얼마나 관리되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임. 그래서 올 1년 동안 지표화하여 관리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밖으로, 어차피 디지털서울이라는 것이 브랜드를 올리는 거는 결국 비즈니스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인덱스를 주도해 나가는 그 노력이 브랜드 상승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들을 내년 1년동안 해 봤으면 좋겠음.
- (○○○)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겠음. 작년도 계획을 정리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 봤었음. 작년에 단일 내지는 대표지표라고 뽑아내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지난 2월 발표 당시에는 인프라나 과정지표,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었음. WeGO와 함께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측정부분이라든지 서울서베이라든지 지표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음. 과정지표로 할 것인지 체감지표로 할 것인지 등 지표를 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사장님 말씀하신 핵심지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음
- (○○○)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를 잘 만드는 것임. 제가 처음에 ‘디지털기본계획2020’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이 들었음.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지금시대에 맞는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됨. 4차 산업혁명에는 ‘스마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보니까 5년전에 서울시가 ‘스마트’라는 용어를 써버림.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주로 사용했던 용어중의 하나임. 아까 지표 말씀하셨는데, 지표안에 디지털2020이 지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지표부분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 서비스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 행정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백본의 과제에 필요한 무언가의 측면이 필요해 보임. 54개 과제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됨. 구조를 분류해 보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목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저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꺼라고 생각이 들었음.

- (○○○) 부연의 말씀을 드림. 5년의 계획인데 변화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은행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되었다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하고 묻고 싶음. 아니면, 계획 내용을 좀 더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예를들면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보면 중고 PC를 보급하겠다는 것보다는 중고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것 등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가야 하지 않는지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나 와이파이 하는데, AP 개수만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WiFi를 켜 두면 WiFi를 먼저 잡으려고 하니깐 LTE접속이 안되고 WiFi를 끄게 되면 접속이 되는 간섭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것이 제대로된 서비스냐, 시민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가 등 이렇게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지 서울시가 나아가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듬.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첫 해이니깐 바꿀게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바꿀 내용을 대한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음.
- (○○○) ○○○ 교수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게, 저는 오늘 위원회에서 기대했던 것이 자료에 보류나 제외되는 타실본부국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보고자 이런 식의 총괄 장표를 만들었던 부분임. 사실 연기, 보류, 축소라고 표기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음. 이러한 의견을 모아서 시장단에 보고드리고 나서 디지털서울 홈페이지에도 과제별로 변경사항에 대해 업데이트할 계획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주시거나 추가적으로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음
- (○○○) 그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요.
- (○○○) 회의자료 14~18쪽의 내용이며, 과제 세부사항은 표기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됨. 내년도 예산상의 이유로 1년 연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3년 연기되는 내용이나 지표가 낮춰지는 과제 등 전문가 입장에서 부서 의견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디지털2020 과제에서 관리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표기 되어 있지만, 사업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 (○○○) 사실 오늘 회의도 서울시를 경영한다는 회의임.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서비스 구현측면과 시민서비스 측면이 나오는데, 좋은 서비스를 잘 구현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만 즐길 것이냐 마케팅 측면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를테면, 이 좋은 것을 서울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쓰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등 도시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함
- (○○○) 이 부분은 WeGO 총장님께서 SH공사건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다른 도시라는 것인 국내일수도 있고 해외도시일 수도 있는데 WeGO가 판매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공유하는 형태임. 서울시 산하에 비용을 보완하는 하는 측면에서 SH공사 산하에 수출단이라는 형태의 조직이 있음. 거기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직접 연관시켜서 정책시스템들이 수출이 되도록 하고 어느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다시 보상받아서 해외전과활동의 자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 있음
- (○○○) 저희는 해외도시 외에도 세종시, 고양시, 성남시 등 국내 5개 도시도 회원으로 있음. 해외도시 대상으로 할 때는 서울시 정책수출단과 긴밀하게 함께 일하고 있는데, 워낙 관심이 높은 상황임. 더군다나 인도 스마트시티 100개 만들고 중국은 몇백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대상은 결국 서울이기 때문에 끝없이 찾아 오고 있는 상황임. 또 내년도에는 아프리카 도시들이 모두 스마트시티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대상이 또 서울시임. 서울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독특한 경험이 있고 워낙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도시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어떠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예를들어 굉장히 소규모이지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시나 대규모이지만 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 등 스마트시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공해 준다면 충분한 상품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됨
- (○○○)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큰틀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전체) 이의없음
- (○○○) 네...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바쁘신들 모셨는데, 숙제를 안고 감. 14~18쪽에 대해 위원님들의 전문분야에 비추어 추후 검토

후에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람. 그럼 오늘 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음. 감사드립니다